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다

본 문 마태복음 5장 9~12절

<말씀 시작>

1. <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다.
2. <복>에는 ‘육적인 복’ 과 영적인 복 ‘이 포함되어 있다.
3. <복을 받는 절대법칙>은 ‘복을 받는 조건을 행하는 것’ 이다.
4.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일’ 을 해야 되듯이,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받고 싶은 복에 해당되는 조건’ 을 세워야 된다.
5.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복’ 을 받는다고 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풀어보면,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곧 <자기 부족, 신앙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채우는 자>를 말한다. 그는 ‘복’ 이 있으니, ‘천국’ 이 그의 것이 된다.

6. <유대 종교인들>은 “나는 신앙의 부족이 없다. 잘하고 있다. 영적으

로 신앙적으로 부유하다.” 라고 하며 만족하고 살았다.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자기 외에는 나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 하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좇고 따르며 배웠다.

7. 둘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애간장을 태우며 주님께 애가 닳도록 매달리고, 말도 하고, 간구도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8. 셋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 ‘착하다’, ‘선하다’, ‘까다롭지 않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악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강하고 무뎌지지 않다’는 말이다. 또 ‘성격이 옥토 밭과 같고, 실크 옷과 같고, 잘 닦여진 수석과 같다’는 말이다.

9. <온유한 자>는 ‘성격도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모두 온유한 자’를 말한다.

10. <성격>과 <마음>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들고 닦기도 해야 된다.

11. <같은 태속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도 ‘성격’과 ‘마음’이 다 다르고, 만들고 닦는 대로 또 달라진다. <야곱의 열두 자녀들>도 성격이

다 달랐다. 그 중에 요셉은 신앙의 충성자로서, 만들고 닦은 대로 더 달랐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살려면, ‘성격’ 과 ‘마음’ 과 ‘행실’ 을 닦아야 된다.
13.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닦인 대로 ‘시대의 차원’ 이 달랐다.
14. <성약시대>는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히 닦여진 시대’ 다.
15.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이 시대의 복’ 을 받는다. <시대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대로’ 더 복을 받고 산다.
16.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삭막한 신광야 땅’ 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그 2세들은 마음이 온유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을 기업으로 받았다.
17. 시대마다 민족도 섭리사도 개인도 <마음>이 닦아진 대로 ‘시대의 땅’ 을 기업으로 받았다. <마음>이 온유한 대로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땅’ , 신약시대 때는 ‘신약의 땅’ , 성약시대 때는 ‘성약의 땅’ 을 기업으로 받았다.
18. <받은 땅>만 보아도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 이 시대 신부들은 그 마음대로 ‘온유한 월명동 땅’ 을 천 년 기업으로 받았다.
19. 넷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되는 복’ 이 있다

고 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들’이다. 〈구시대인들〉은 항상 그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만족하며 배불러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의에 주린 자들로서 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시대의 복’을 받았다.

20. 다섯째,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자’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사랑하는 자는 그도 ‘공홀히 여김’을 받는다.

〈공홀함이 없는 자〉는 ‘인정 없이 말하고 행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주께도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21. 어느 시대든지 〈주의 심정으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 앞에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악평자들〉도 그러했고, 〈형제의 마음과 행실을 제대로 모르고 대한 자들〉도 그러했다.

22.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고 살게 된다.

<핵심>

23.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다.

신약시대 때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평을 깨트림으로 ‘자녀급 주관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린 꿈’을 이루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됐다.

반면, <화평으로 예수님을 좇은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2000년 역사를 펴 나갔다.

이 시대도 <화평을 깨트린 구시대인들>은 이 시대 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00년 동안 기다린 꿈과 이상’을 깨트림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됐다.

24.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모두 <화평으로 해결>하고 <화평으로 결정>해야 된다.

25. <화평으로 주를 좇은 자들>은 모두 ‘시대 신부’가 되어 신약 2000년의 꿈을 이루고, 성약 1000년 역사를 펴는 기회를 얻었다.

26. <머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요, ‘주’다. 그래야 <화목함>으로 ‘진짜 신부’가 되어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게 된다.

27.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주를 위해 핍박과 각종 고통을 겪은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시는 축복과 상’이 크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시는 8가지 복을 받은 자>는 더욱 차원을 높여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29.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저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서로 화평으로 행해야 된다.